방사능보다 더 파괴적인 천국 빛

(엡3:1~13)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방사능보다 더 파괴적인 천국 빛>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방사능보다 더 파괴적인 천국 빛
빛의 종류에는 크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빛이 스펙트럼 현상을 일으킬 때 무지개 빛깔의 빛이 보이는데, 빨주노초파남보, 맨 위에 빨강색, 맨 아래 보라색으로 그렇게 띠를 두르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대부분 가시광선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적외선은 붉을 적(赤)자로 스펙트럼에서 빨강색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맨 아래쪽에 보라색 바깥에 있는 거라서 자외선인데, 이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으면서 에너지가 강하고, 빨강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면서 에너지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자외선이 위험한 것은, 파장이 짧으면서 에너지가 강해서 침투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이 자외선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서 피하조직의 DNA 고리를 파괴시킨답니다.
DNA고리가 파괴될 때 나타나는 게 피부암이라는 거지요.

자외선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자외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변하게 돼버려요, 죽지요.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체르노빌 원자로가 녹아내리면서 지금 그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근데, 이러한 모든 빛들 중에서 방사선의 그 빛의 파괴력이 비교가 안 되는 빛이 있는데, 자외선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물론이고, 그런 빛이 뭐냐 하면 천국 빛입니다.
이 천국 빛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더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변화된 영화로우신 주님의 그 신령하신 몸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 신령한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는 거예요.
적외선이 사람 몸에서도 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투시경 같은 거 있잖아요? 밤에 쓰면 빛이 없는 깜깜한 중에서도 다 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적외선을 포착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에서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방사되는 것처럼, 적외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빛이 나온 겁니다.

이 천국의 빛을 쐬면서, 천국의 빛에 노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이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 간절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독립이에요.
로마식민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독립할 때 예수님이 독립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예수님 따라 다니다가 그 독립한 나라에서, 이렇다할만한 자리 하나 얻고 사는 것, 강렬한 소망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망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갖고 있었던 아주 귀중한 관계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장모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장가간 사람이고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소멸돼버리고 맙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열두 제자 중에 아홉 제자가 지금 산 아래 있지 않습니까? 동료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마음에서 나라도 소멸되고, 가정도 소멸되고, 동료도 소멸되고, 가족도 소멸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라는 도시가 초토화되지만, 베드로가 천국 빛을 쐴 때는, 베드로 마음속에 천국 빛이 닿자마자 순식간에 없어지면서 완전히 세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영원토록 살자고 주님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 빛의 파괴력이에요.

알고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천국 하지만 천국 빛이 우리 마음에 쐴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은 완전히 피폭당한 것처럼 색이 바래지고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아무 것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없어지고, 바라는 것이 없어지고, 갖고 싶은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빛의 파괴력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 잘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일이 천국 빛을 쏘이게 되면서, 천국 빛 아래에서 내 마음에서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좋은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내가 마음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없앨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 좋은 게 많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이런 것은, 이건 그냥 아무 것도 아니고 불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고, 이런 걸 더 이상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국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때만 내 마음에 비친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내 마음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천국 빛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 빛에 노출되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내 마음이 나오면 다시 또 세상이 살아나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많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토록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상 것이 좋아 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느냐.

그 중에 그 싸움을 점화시킨 제자들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던 걸 밖으로 노출시켜서, 갈등이 노골화 되게끔 점화작용을 한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에요.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각각 앉혀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또 덩달아 가지고 장단을 맞추면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들 자신의 사건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완전히 세상이 마음에서 궤멸돼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음에서 세상이 궤멸돼버린 상태에서 살아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빛을 쏘여주신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계속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이 궤멸된 상태에 있으면서, 세상을 한 순간에 궤멸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이는 천국 빛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바울이 이 빛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도 그렇고 5절 6절에 그 비밀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비밀이 두 가지가 나와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게 비밀이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은혜, 한 약속, 하나의 상속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비밀이 만들어졌냐 하면, 창세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이방민족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밀인데, 비밀이겠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구원의 영역이니까.
또 유대인들로서도 몰랐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도 몰랐던 비밀입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줄 알고 있었죠.
물론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유대인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는, 이방인은 멸망당해 마땅한 존재

들로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이 선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한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빛을 쐬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천국 빛을 쐬게 되는 것, 천국 빛에 노출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들 됨이라는 거예요, 아들 됨.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들 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에 관심의 대상은 영원하신 아버지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상을 만나야 예수님의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영원토록 끝이 없는, 무궁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 속에서, 하나님만 관계하시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랑스러우셨는데, 그렇게 좋으셨는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연장이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전부 예수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긴 이 세상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만물 중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지요, 피조의 세계에 중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6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드시고, 6일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이 태어나기 위한 무대세트와 같은 거지요.
무대세트를 만들어 놓고야 배우들이 올라가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은 아무리 우주가 광활하고 무한하고 해서, 인간이 정말 눈곱만큼 작게 보여도, 그 작게 보이는 게 왜 그렇다고요? 육체에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의 자아의식이 육체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데, 하여간 그렇게 광대한 우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 배경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이 두 관심의 영역이 생겼는데,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마는, 아들로서의 예수님 마음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시는 가운데 세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만 보고 계시는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신 아버지의 생각을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세상을 보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에서 언제나 관심의 대상 중에 일등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빛바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하나님만 보고 계셨고, 아버지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는데, 이 세상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버지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 관심을 올라타는 것이지, 당신 스스로 독자적으로 따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패턴의 삶이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도 계속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 당신의 자리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을 아들이 되게끔 하시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아들의 자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됨의 자리를 모든 사람과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사건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지금 지칭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이르신 그 공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처님도 못 만드신 거고, 공자님도 못 만드신 거고, 소크라테스도 못 만드신 영역입니다.
칭기즈칸도 못 만들었고, 나폴레옹도 못 만들었고, 알렉산더도 못 만들은 영역이에요.
빌 게이츠 못 만드는 영역이고, 이 건희 씨도 못 만드는 거고, 대통령도 못 만들어요.
그 어느 왕도 못 만드는 영역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들 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 전에 주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진 뒤에도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 된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만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경험한 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아버지께만 관심을 갖습니까?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비쳐 나오는 그 빛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릴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이 있고 납이 있으면 누가 납을 쳐다보겠습니까? 금을 쳐다보지,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요? 다른 것이에요.
다른데 나쁜 방향으로 다른 것을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다른 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쪽으로 다르게 좋고, 더 좋게 다르고, 더 좋게 다르고, 다르고, 다르고 하다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것과 다르게 좋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들 되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보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신 거지만, 어느 것도 주님의 관심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될 때, 천국 빛이 쏘이게 됩니다.
천국 빛이 쏘이게 될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천국 빛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세상의 좋은 것들이 잿더미로 변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주님이 아버지를 뵈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뵈게 되니까.
근데 아직 안 그렇지요? 안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마음이 머물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기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이건 무슨 조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허락됐다는 겁니다, 이 아들 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방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의 위치에서 세상 만물과 하나님아버지가 계심 가운데 마음의 관심이 아버지께만 들여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아버지를 뵈듯이,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천국의 보좌에 앉아계신 대로 다 그대로 보여 지면, 거기에 믿음이랄 것도 소망이랄 것도 사랑이랄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보여 지는데 누가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은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이 세상은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좋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재물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의 번영이라든지, 나라의 번영이라든지, 승진이다 뭐 출세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 쪽에 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하면,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일등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등 없는 일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이등의 자리에 들어서기 위한 운명을 타고나게 만든 겁니다, 좋은 게 있는 가운데 아버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빛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만이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은,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빛이 비치거든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비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신 자들이 그게 누구냐 하면,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세상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 비치는 가운데, 좋은 것이 가득 들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등을 지는 것, 그 등을 지는 행동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빛을 온 세상에 지금 다 비춰 버리시면,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빛에 쐬게 되면 이 세상 게 다 휴지조각이 돼 버리니까, 좋은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근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빛을 싹 가려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이게 선민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빛이 안 보이는 가운데 아버지가 보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나와 연합하자!’
그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의 접점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늘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겐 가려져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마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편이었죠, 신화라는 게.
이 세상뿐인 거예요, 이 비밀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들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천국의 빛을 쬠으로써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터져 잿더미로 변한 것보다 더 강하게, 이 세상만물과 우주까지 전체가 내 마음에서 잿더미로 변하면서,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경험들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로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방사능보다 더 강한 파괴력을 지닌 천국 빛에 노출됨으로써, 세상과 이 육신의 나는 간 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신비로운 경험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알차게 영적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